



NC 원종현은 암을 딛고 일어난 데 이어 WBC 대표팀까지 선발되며 '인간승리'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곧 미니캠프 참가를 위해 31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는 원종현. 인천국제공항 | 김민석 기자 marineboy@donga.com

원종현 “태극마크 단 내 모습, 나도 궁금해”

“WBC 굉장히 설레…잘해야한다는 마음 커
NC 팀 동료 김태균과 대표팀 함께 해 든든”

요즘 NC 원종현(30)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인간승리’다. 대장암과 싸우며 1년 만에 돌아와 마운드에 선 것 자체가 기적인데, 최고구속 155km의 빠른 공은 그대로였고, 중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까지 완벽하게 장착했다. 여기에 2016시즌 54경기에서 3승3패3세이브17홀드, 방어율 3.18의 성적을 거두며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최종엔트리(28명)에 이름을 올렸다. 생애 첫 태극마크, 인간승리가 아닌 순수 한 실력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원종현은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팜으로 출국했다. 동료 김태균(NC)과 서건창, 김하성(이상 넥센), 차우찬, 임정우(이상 LG), 박희수(SK), 손아섭(롯데) 장시환(kt) 등 대표팀 멤버 9명이 함께하는 미니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원종현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며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공항에 도착하니 (대표팀에 선발된 것이) 실감이 난다”고 웃으며 말했다.

몸 상태가 좋아진 만큼 준비과정도 확 달라졌다. 비 시즌에도 꾸준히 캐치볼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추운 날씨 탓에 공을 제대로 던져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원종현은 “이제 긴 시즌을 치러야 한다. 올해는 WBC부터 준비한다”며 “지난해

와 달리 몸 상태도 좋다. 매 순간 고비가 찾아와도 잘 이겨내야 한다. 추운 날씨 탓에 제대로 투구 훈련을 못 했는데, 체력을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욕심이 컸다. 지난해에는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밟아야만 했다. NC 김경문 감독도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 일단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돌아와 힘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며 원종현을 달랬다. 1군 복귀 전인 지난해 5월31일 마산 두산전부터 승승장구한 비결 중 하나가 무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준비한 것이다.

김 감독은 국가대표가 된 원종현에게 “병마와도 싸워 이겼으니 기회를 얻은 만큼 최선을 다하고 방심하지 말라. 잘하고 오라”고 격려했

다. 원종현은 “지난해 비시즌에는 욕심만 커지다 보니 서둘렀다. 오히려 지난해에 더 마음이 급했던 것 같다”며 “올해는 자연스럽게 컨디션이 올라온다. 더 잘될 것 같다. 웨이트트레이닝도 많이 했다. 내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이뤄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첫 태극마크를 달기까지 시간이 무척 길었다. 솔한 우여곡절 끝에 얻은 값진 훈장이다. 이에 원종현은 “굉장히 설렌다. 기대보다는 잘해야한다는 마음이 크다. 나도 태극마크를 단 내 모습이 궁금하다”며 “상대가 누구든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 소속팀에서 호흡을 맞추던 (김)태균이와 함께 대표팀에 가게 된 것도 든든하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한화 ‘도미니칸 듀오’ 시너지효과 기대되네

국내 2년차 로사리오, 오간도 도우미 자처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서로 알던 사이

3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한화 외국인선수 윌린 로사리오(28)와 알렉시 오간도(34)는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전날 한국에 도착해 이튿날 새벽부터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오르는 강행군에도 지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같은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둘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한화에서 2번째 시즌을 맞는 로사리오의 오간도에게 직접 한화 구단관계자들을 소개하며 적응을 돕기도 했다.

각 구단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팀 내 외국인선수간 갈등이다. 이 같은 문제로 자주 애를 먹다 보니 요즘은 외국인선수를 뽑을 때 인성까지 고려하는 추세다. 이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한 시즌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행운에 가깝다. 오간도와 로사리오의 의기투합이 눈에 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지한 성격까지 닮았다. 로사리오의 그라운드에서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이고,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때로는 분위기메이커를 자처한다. 기존 외국인투수 에스밀 로저스(33)와 가장 큰 차이는 ‘신만함’이다. 로사리오의 훈련 시간에 집중도가 매우 높은 외국인선수 중 한 명. 한화 구단관계자는 “로사리오와 오간도가 서로

잘 맞는다. 애초에 알던 사이였다. 외국인선수들의 마음이 서로 잘 맞아 친하게 지내면 그만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며 반색했다.

오간도의 첫인상은 로사리오의 평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등 새 동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다. 영어에 다소 서툰 그를 위해 로사리오가 영어 통역을 자처하기도 했다. “오간도와 같은 팀에서 뛰게 돼 정말 기쁘고 또 다행이다”던 로사리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외국인선수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한화로서 새로운 ‘도미니칸 듀오’의 의기투합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 | 강산 기자

NC 조직개편…유영준 신임단장 체제 출발

관리본부장에 김명식 변호사 선임

NC가 스프링캠프 출발에 맞춰 새 단장을 선임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새 출발’의 각오를 드러냈다.

NC는 전지훈련을 떠난 31일 신임 단장에 유영준(55) 스카우트팀장을 선임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구단 측은 “구단 조직을 선수단 운영·육성 조직과 구단 관리·사업 조직으로 이원화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영역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수단 운영과 육성을 이끌 유 신임 단장은 NC가 창단한 2011년부터 스카우트로 합류해 첫째 나성범과 이민호, 박민우부터 올해 신인들까지 지난 6년간 NC 주력 선수들의 스카우트를 담당했다. 배명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유 단장은



유영준 단장

프로는 아니지만,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실업팀 한국 화장품에서 포수로 뛴 ‘선수 출신’ 단장이다. NC 합류 직전에 9년간 장충고 감독을 맡았을 때엔 일반 학생들에게 체육교사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단 측은 ‘선수단에 대한 높은 이해도,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 단장 선임배경으로 밝혔다.

NC는 구단 경영, 관리 및 사업조직을 총괄하는 관리본부장에 법조인인 김명식 변호사(47·사법연수원 25기)를 선임했다. 지난 11일 구단에 합류한 김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화현, 법무법인 벅서스 등을 거쳐 ㈜네오위즈게임즈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등 법률실무 및 기업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경험이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구단에서 신설한 윤리감사관의 직책을 함께 수행한다. 구단 관계자는 “메이저리그도 변호사들의 구단 진출이 많아졌다. 에이전트 도입에 대한 선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신축 구장 건립에도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직무정지 중이던 배석현 전 단장은 구단의 국제업무 담당으로 자리를 옮겨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선수 영입을 맡는다. 김종문 전 운영본부장도 퓨처스리그 운영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승부조작 선수에 대한 은폐 의혹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아직 검찰의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구단 측이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법적인 처분을 기다리게 됐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한화 새 외국인선수 알렉시 오간도(오른쪽)가 31일 스프링캠프를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윌린 로사리오와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고 있다.

‘밀려난 1루수’ 롯데 박종윤의 위기

이대호·최준석·김상호가 1루수 우선순위
연봉 43.1% 삭감에 대만서 2군 캠프 훈련



박종윤

롯데의 이대호(35) 영입은 상징적, 흥행적 요소를 견어내고 보자면 결국 주전 1루수를 찾지 못한 귀결이다. 더 이상 KBO리그에서 이를 것이 없었던 이대호는 2011시즌 후 프리에이전트(FA)가 되자 부(富)와 꿈을 좇아 해외로 떠났다. 이대호가 커리어 황금기의 6년을 바깥에서 보내는 동안, 롯데 1루수 기회는 박종윤(35)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팀과 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6시즌이 흘러갔다. 그리고 2017시즌을 앞둔 박종윤은 ‘위기의 남자’가 됐다.

롯데는 1월의 마지막 날 2017년 연봉 재계약을 발표했는데 박종윤의 연봉은 1억60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줄었다. 43.1%의 삭감률은 롯데에서 전체 두 번째로 컸다. 2015년 연봉 2억 원을 찍었는데, 이제 1억 연봉의 마지노선마저 깨졌다. 바깥에서는 “박종윤이 저항해서 롯데가 연봉 발표를 못하고 있었다”는 오해까지 들었다. 사실 박종윤이 아니라 정대현(39)의 연봉(3억2000만원→1억2000만원)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었다.

박종윤이 롯데의 미국 애리조나캠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연봉 미계약 탓이 아니었다. 롯데 조원우 감독이 박종윤을 제외시킨 것이었다. 롯데 관계자는 “박종윤은 대만 2군 캠프에서 훈

련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롯데 1루수 전력구상의 우선순위가 이대호, 최준석(34), 김상호(28)라는 의미가 된다.

출발선부터 뒤처지게 된 박종윤은 이제 재선임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 2001년 전체 33번째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뒤, 재능보다 성실함으로 버텨온 야구인생이었다. 그러나 이대호를 잇는 1루수였기에 롯데 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었다. 이제 30대 후반기로 접어드는 박종윤에게 유독 추운 겨울일 듯하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손아섭 연봉 5000만원 인상된 6억5000만원
롯데가 1월의 마지막 날, 2017년 연봉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프리에이전트(FA)를 앞둔 손아섭의 연봉은 전년 대비 5000만원 오른 6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박진형, 김상호, 김문호 등 총 4명의 선수가 100%를 넘는 연봉인상폭을 기록했는데, 1위는 37세 투수 이정민(6500만원→1억5000만원, 130.8%)이었다. 반면 정대현(3억2000만원→1억2000만원)과 박종윤(1억6000만원→9100만원)은 대폭 삭감됐다. 한편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수 이성민(27)에 관해선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kt 김진욱 감독 숙제는 ‘선발투수·3루수 찾기’

1선발급 외국인투수·3루수 영입 물거품
스프링캠프서 경쟁 통한 대체선수 발굴

‘김진욱 호’ kt가 부푼 꿈을 안고 미국 애리조나로 떠났다. kt 선수단 전원은 31일 투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2월 스프링캠프의 막을 올렸다.

2015년 1군 진입 이후 2년 연속 최하위에 그쳤던 만큼 새 시즌 목표는 하나다. 한 단계라도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kt의 최우선 목표이자 유일한 과제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김 감독이 부임 당시부터 요구했던 3루수 보강과 1선발급 외국인투수 영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플러스 요인 하나 없이 시즌에 임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해답은 하나다. 기존 선수층에서 대체재를 구해야하는 방법뿐이다. 사령탑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김 감독은 신년 결의식에서 현재 불펜자원을 중에서 대체선발을 구하겠다는 방안을 내비쳤다. 유력후보는 우완 고영표(26)와 엄상백(21), 이상화(29) 그리고 좌완 심재민(23)과 박세진(20)이다.

물론 이들 중 하나가 풀타임 선발을 맡는다는



고영표

엄상백

박세진

김사연

김연훈

것은 아니다. 과부하가 걸릴 땐 볼펜으로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도 가능하다. 예비후보군이 전천후의 스위퍼 역할만 수행해낸다면 지난 시즌보다 수월하게 144경기를 치러낼 수도 있다.

선발만큼이나 걱정을 안기고 있는 곳은 3루 자리다.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이원석(31)과 황재균(30)을 모두 놓친 터라 현재 하코너는 무주공산 상태. 결국 김 감독은 김사연(29)

이라는 카드를 빼내들었다. 일종의 교육자책이다. 김사연은 지난해까지 외야수로 뛰었지만, 3루 수비경험이 있는 만큼 하코너 경쟁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미국 스프링캠프에선 김사연을 비롯해 심우준(22)과 김연훈(33), 정현(23) 등이 격전을 치른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정윤운 기자 sadzoo@donga.com